**제8과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2020.3.8**

◎ 찬양 : 찬송가 391장(통일 446장)「오 놀라운 구세주」

◎ 사도신경

아이스 브레이킹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해봅시다.

**말씀 속으로**

**주제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마태복음 4장 23∼24절).

**말씀 펼치기**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사역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심**

첫째,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율법과 전통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에는 율법 본유의 정신은 사라지고 겉치레만 남아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본래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범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왜곡된 율법과 전통을 가르치지 않으셨고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5:17).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율법에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심 어린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마 5:20∼48). 또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구제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솔한 기도와 남모르게 행하는 헌신을 강조하셨습니다(마 6:1∼4). 나아가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을 문자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마 12:1∼12).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겉치레보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점철됩니다(마 22:37∼40).

Q :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둘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죄를 사함 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병을 고침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마 8:16, 9:2, 15:30∼31).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있습니다(눅 17:21). 따라서 우리는 죄를 사함 받아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고 귀신을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 있으며 기도함으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 나라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마 24:29∼31, 25:46).

Q :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병을 고치심**

셋째,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질병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창 3:19).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병을 고침 받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과 근방에 널리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왔습니다(마 4:24∼25).

예수님의 신유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똑같이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치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주실 것입니다(마 8:17). 그리고 병을 고침 받은 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Q : 예수님이 공생에 시절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은 무엇일까요?

**삶 속으로**

1.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2. 하나님께 병을 고침 받은 일이 있다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에게 치료받아야 하는 병이 있다면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고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과 기도**

**결단의 고백**

·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기보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며 보이지 않게 섬기겠습니다.

· 제가 혹은 제 주변 사람들이 질병을 앓게 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통성기도**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제가 되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관련 성구**

·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마태복음 7장 24∼25절).

·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야고보서 5장 15절).